

보도일시	2021. 9. 30.(목) 조간 *인터넷 2021. 9. 29.(수) 12:00 이후 / 총 2쪽		
담당부서	건설근로자공제회 조사연구센터	센터장 심규범 차 장 강승복 대 리 김혜원	02-519-2440 02-519-2442 02-519-2441

< 본 자료는 <http://www.moel.go.kr>와 <http://www.cw.or.kr>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. >

건설근로자공제회, '이슈페이퍼' 2호 발간

- 제2호에서는 최근 건설기성액과 건설기능인력 간 비동조화 원인을 분석

- 건설근로자공제회(이사장 송인회, 이하 '공제회')는 이슈페이퍼 제2호 「최근 건설기성액과 건설기능인력 간 비동조화 원인 분석」을 발간했다.
 - 공제회 '이슈페이퍼'는 퇴직공제, 교육훈련, 취업지원, 복지서비스 등 기존 사업은 물론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, 전자카드제, 적정임금제 등 기능인력과 관련된 신규 현안과 주요 이슈 등을 다루고 있다.
- 이번 2호 이슈페이퍼에서는 건설기성액 증감률과 건설기능인력 증감률의 비동조화 현상을 일자리나누기와 외국인의 내국인 대체 가능성을 중심으로 분석했다.
 - 2021년 3~6월의 자료를 보면, 건설기성액은 전년 동월 대비 감소했지만 건설기능인력은 이와 반대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증감 방향이 서로 반대인 '비동조화(非同調化)'가 발생했다.
- 2021년 상반기의 건설기성액 증감률과 건설기능인력 증감률의 비동조화는 타 산업 실업자의 건설업 유입과 이에 따른 일자리나누기 및 외국인의 내국인 대체로 인한 착시일 가능성이 있다.
 - 비동조화가 발생한 시기에서 월 근로일수와 월 근로시간은 대부분 감소했으며, 건설업 신규 취업자 수의 증가율 또한 대폭 상승했다.

- 인-시간(man-hour) 기준 취업계수 증감률 및 전업 환산 기능인력(FTE) 동향 등을 고려하면 경기 하락 시기인 2021년 상반기에 건설업의 일자리 나누기가 발생했을 가능성을 추론할 수 있다.
 - 2021년 상반기에 코로나로 인한 팬데믹과 적정임금제 일부 시행 등의 정부 정책 변화로 인해 건설업에서 외국인의 내국인 대체현상이 발생했으며, 이로 인해 비동조화가 발생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.
 - 일자리나누기 효과에 의한 건설기능인력 증가 현상은 전년인 2020년 상반기의 고용 감소로 인한 기저효과와 맞물려 증폭된 것으로 보인다.
- 공제회 심규범 조사연구센터장은 “2021년 하반기에도 일자리나누기는 지속되겠지만 기저효과가 사라져 비동조화 현상은 다소 악화할 것으로 전망된다”라고 밝혔다.
- 이슈페이퍼는 건설근로자공제회 홍보센터(cwma.bigzine.kr)에서 볼 수 있다.

※ 기사 이미지로 기관 CI 사용 시, 舊 CI가 아닌 아래 새로운 CI사용 필수



건설근로자공제회
Construction Workers Mutual Aid Association



건설근로자공제회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
건설근로자공제회 조사연구센터 강승복 차장(☎ 02-519-2442)에게
연락주시기 바랍니다.